

뚜렷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로 산업생산 호조 예상

2006년도 산업별 전망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6년 산업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0대 주력업종의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고 수출증가율이 9.7%로 산업성장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의 실질기준 생산은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호조가 예상된다. IT산업군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의 경우 생산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2006년 주요산업의 수출·내수·생산·수입 전망

1. 뚜렷한 내수 회복세와 수출증가세 유지로 산업생산 호조 예상

2006년에는 10대 주력업종의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고, 달러기준 수출증가율이 9.7%로 2005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의 성장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실질적 기준 내수는 컴퓨터,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및 회복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주요 업종의 실질기준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며, 특히 품질경쟁력 제고로 IT산업군의 수출은 호조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2. 수출, 품질경쟁력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전망

수출의 경우, 일반기계는 현지기업의 설비투자 및 중동지역의 기계 플랜트수출 증가로 19.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및 통신기기는 각각 29.3%, 17.6%의 높은 증가를 나타낼 전망이다.

3. 내수,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내수는 국내경기 회복, DMB 보급 및 월드컵 개최 등으로 자동차, 가전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방송의 확대 및 월드컵 개최 등 수요여건의 개선에 따라 가전산업의 내수 증가가 예상되나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의 경우 신제품 수요 및 DMB 서비스 수요 예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급률, 기업수요 부진 등으로 내수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4. 대부분의 업종 생산, 호조 예상

2006년의 실질적 기준 생산 분야는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섬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호조가 예상된다. 기계산업군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실질 생산증가율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소재 산업군에서도 철강 및 석유화학은 증가율 상승이, 섬유는 감소율 둔화가 예상되는 등 뚜렷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군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율 상승이 예상되고, 특히 가전, 통신기기 및 컴퓨터의 경우는 생산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5. 수입, 철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실질기준 높은 증가 예상

금액기준 수입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기준 수입 증가율은 철강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화학 및 가전은 실질수입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며, 기계 산업군 및 IT산업군의 실질수입 증가율은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컴퓨터의 실질 수입증가율은 무려 23.2%로 예상되고 있어 내수의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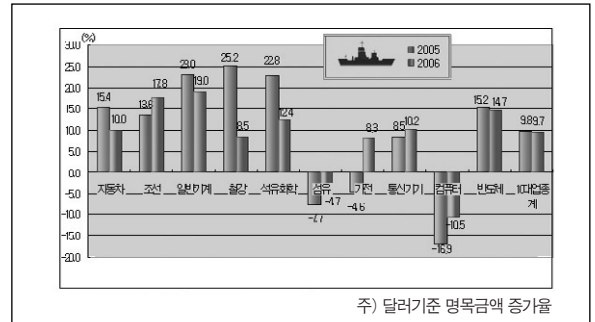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업종의 수출 증가율 전망(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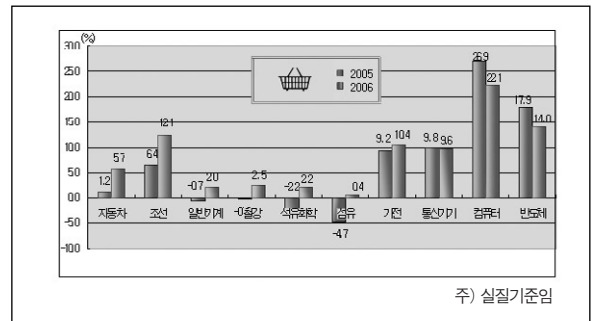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업종의 내수증가율 전망(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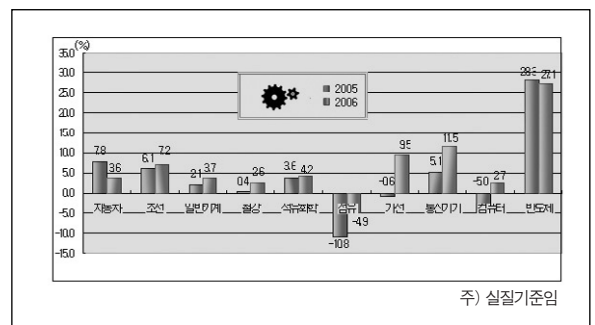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전망(2006년)

표 1. 업종별 산업 전망 기상도(2006년)

	생산	수입	내수	수출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통신기기	☹☹	☹☹	☹	☹☹
컴퓨터	☺	☹☹	☹☹	☹
반도체	☹☹	☹☹	☹☹	☹☹

주: 전년 대비 실질 증가율 기준, -10%~-5% ☹, -5%~0% ☹☹, 0~5% ☺, 5~10% ☹☹, 10% 이상 ☹☹☹



6.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업계 자율 구조조정 유도 필요

투자확대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부문간 연계 및 협력 유도, 입지 여건 개선 등의 기업 투자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 여건조성 및 기술인력 확충 등 간접적인 산업발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기술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지적됐고, 이외에도 유통구조 선진화,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역할 제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제품 다각화 지원대책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6년 업종별 전망

일반기계

내수는 수요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3.8%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미·대일 원화환율도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은 신장률이 약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과 함께 수출신장률이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증가율은 전년(3.5% 예상)보다 높은 5.5%로 예상된다.

수입은 국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환경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증가율이 14%로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

내수는 지상파 DMB 등 디지털 방송 활성화, 업체의 적극적인 판매촉진 전략, 독일 월드컵 개최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7.4%의 증가세를 시현, 지난해의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가전수출은 세계적 이벤트에 민감한 디지털 영상기기의 수요 증대와 독일 월드컵 특수 기대, 북경 올림픽을 대비한 중국의 디지털 방송 개시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8%의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가전생산은 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회복과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가전 수입은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11.1% 증가할 전망이다.

통신기기

내수는 이동전화기 시장의 높은 보급률 등 부정적 요인이 다소 존재하지만, 지상파 DMB 및 3G(WCDMA) 등의 신규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상반기에 예정된 휴대인터넷(Wibro)의 상용화,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시행 등에 따른 관련기기의 수요가 창출되면서 소폭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3G 서비스 본격화에 따른 이동전화기 및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도 등 신흥시장 확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약 10%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신흥지역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확대와 신규서비스 및 첨단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생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통신기기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부품 수입을 일정부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동전화기 관련 핵심부품의 수입의 지속과 신규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도 다소 발생

되면서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약 9.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보급률이 한계수준에 도달한데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어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보급형 노트북의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약간의 내수증대가 예상된다.

생산은 수출 감소, 해외생산 확대, 수입증가 등 악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여서 감소가 불가피하다. 수출은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의 열세 지속, 경쟁심화 등으로 작년에 이어 두자리 수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이며, 이에 비해 수입은 중국 저가제품 수입수요 증가, 외국기업의 가격마케팅 수요 등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국내생산기반이 위축되면서 완제품인 노트북, 데스크탑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업계는 탈D램화와 함께 낸드플래시 분야로 생산중심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응용분야인 PC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신개념의 저장장치를 필요로 하는 네비게이터, MP3 플레이어, 휴대폰 등이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반도체 생산(실질기준)은 전년대비 27.1%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은 세계 시장 성장과 더불어 2006년에 전년대비 14.7% 증가한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출이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유망분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에서는 방송통신용 반도체 신규제품의 활발한 출시가 예상되며, 국내 신규서비스인 휴대인터넷(Wibro) 및 지상파 DMB 단말기용 관련반도체가 시장 확대는 물론 국내 반도체 설계전문 업체들의 활발한 기술개발도 기대된다.

고해상력 시대에 아직도 범용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www.prooptics.co.kr



프로답게 생각하고 프로답게 일하는 기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1리 475번지

전화 : (031) 635-9732

팩스 : (031) 636-9732

연구소장 · 이학박사 정진호

- 렌즈설계, 광학시스템설계 및 제작
- Vision Inspection 광학계 설계 및 제작
- 초정밀 광학 부품 설계 및 제작

- 업체기술지원 및 위탁(위촉)연구수행
- 노광 광학계 설계 및 제작, 수리
- 서울광학산업(주) 기술영업 대행

당사의 맞춤형렌즈는 귀사의 장비성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